

# 시어(Poetic Dicton)의 확산

—사설시조의 경우—

## 일 종 찬

### I

평시조와 사설시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선배님들의 많은 지적이 피상적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막연히,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발전된 형태라던가, 그 반대로 퇴보된 형태라고 말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사설시조가 평시조보다 발전이 되었으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며, 퇴보되었으면 또 어떤 점에서 퇴보되었느냐 하는, 구체적인 지적이 따라야 할 것이다.

평시조와 사설시조와의 차이점을 구명하자면 크게 잡아 형식면과 내용면에 대한 고찰이 있을 수 있다.

형식면과 내용면에서 평시조와 사설시조와의 차이를 고찰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찰이 피상적이 되지 않으려면, 형태(form)·운율·표기·시어·주제·소재·문체·수사 등의 어느 한 측면에서, 또는 이런 측면의 연구를 통한 결합 아래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평시조에 나타난 시어(Poetic Diction)의 측면에서 평시조와 사설

---

시조와의 차이를 발견하자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평시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육설·재담(구어체)·변정거림(Satire) 등이 사실시조에서는 너무 흔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어의 입장에서 발견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Ⅱ

언어기능의 의미상의 구분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눈다. 즉, 외연(外延 Denotation)의 기능과 내포(內包 Connotation)의 기능이 그것인데, 전자는 언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기능이라 한다면, 후자는 한 낱말이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 집적(集積)되었거나, 주어진 문대 속에서 획득한 정서적 연상(Emotional association)의 집적을 말한다.

I. A Richards는 언어가 가지는 외연의 기능을 과학적 의미기능이라고 하고, 내포의 기능을 환정적(喚情的) 의미기능이라 하였다.<sup>1)</sup>

그에 의하면, 언어의 과학적 의미기능은 언어의 지시(reference)에 의하여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과학적 명제와 일상적 언어의 의미를 수반하는 언어 기능이며, 환정적 의미기능은 지시된 언어가 환기되어 나타나는 정서적 감동 효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는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과학적 진실을 기술할 때의 진술과 시인이 시로서 나타낼 때의 진술과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를 가진술(假陳述 Pseudo-Statement)이라 규정하여 시어가 과학적 언어와 구별됨을 밝혔다.

I. A Richards의 이런 견해는 시에 있어서의 용어의 완벽성은 친함이 없는 분명함(to be clear without being mean)이어야 한다는 Aristotle의 견해나, 너무 친숙하거나 너무 거리가 먼 말들은 시인의 목적하는 바와는 부합되지 않는다(word too familiar or too remote defeat the purpose of

1) I. A Richards; The Principle of Literary Criticism p. 267

a poet)는 Johnson의 견해<sup>2)</sup>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본다.

시란 본래부터 특별한 용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보다, 다만, 일상 어휘의 어떤 부분이 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Aristotle이나 Johnson, Richards 같은 고전적 전통파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같은 견해들은 Graham Hough나 Allen Tate, Wordsworth, Warren 등에 의하여 부정되고 만다.

Gram Hough는 “환정적이란 과학적이란 말의 필요한 대안이 아니며, 또, 태도를 조직하는데 있어 가진술의 효과는 잘 증명되어 질 수도 없다”<sup>3)</sup>. 하여 Richards의 견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Allen Tate도 “허언(嘘言)의 연속인 시는 환경에 적절한 반응을 마련해 줄 수도 없다”<sup>4)</sup>고 하였다.

Wordsworth도 이 점에 관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는 이미 낡아버린 관용적 표현이나, 소위 시어라고 해서 구어에서 쓰지 않는 독특한 시적 표현, 언어의 장식적 사용 같은 것을 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고는<sup>5)</sup> 아울러 시와 산문도 사실상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좋은 시, 그것도 아주 高尚한 성격의 것이라도 그 상당부분에 나타난 言語가 韻律 이외는 어떤 점에서도 좋은 散文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뿐 아니라, 최상의 詩의 가장 흥미 있는 부분은 잘 쓰여진 散文의 言語와 전연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독자에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sup>6)</sup> 고 장담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작품들을 실제 예로 들어 보려고 하자

이 벼룩을 좀 보시오! 이걸 보면 알거요,  
당신이 나에게 거절하는 그것은 별것 아니구먼.  
이놈이 먼저 나를 뺐더니 지금은 당신을 빼는군.

2) Graham Hough; An Essay on Criticism (金容權 편) p.105

3) Ibid. p.75

4) 김 수영·이 상욱 역: 現代文學의 領域(Allen Tate; On The Limits of Literature) p.142

5) 이 창배: 二十世紀 英美詩의 形成 p.60

6) Ibid. p.60

그리고, 이 벼룩의 속에서 우리 둘의 피가 섞였소.  
 당신은 이것이 죄가 되고 수치가 되고 또한 처녀성의 상실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것이오.  
 그런데, 이놈은 구혼도 하기 전에 즐기는 것이오.  
 그리고, 한 가지의 피로 두 가지의 피를 만들어 욕망을 채우는구리.  
 사실,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려는 행위보다 더 우위한 것이구려.

Marke but this flea, and marke on this,  
 How little that which thou deny'st me is;  
 It suck'd me first, and now sucks thee,  
 And in this flea, our two bloods mingled bee;  
 Thou know'st that this cannot be said  
 A sinne, nor shame, nor losse of maiden head,  
 Yet this enjoyes before it woee,  
 And pampers' d swells with one blood made of two  
 And this, alas, is more than wee would doe.

이것은 John Donne (1572~1631)의 <벼룩>(The flea)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이 시와의 대비를 위하여 같은 시대에 살다간 Robert Herrick (1591~1634)의 <줄리아의 옷에>(upon Julia's clothes)라는 시를 감상해 보기로 하자.

실크옷을 입은 나의 줄리아가 걸어갈 때면  
 그 때, 그 때, 그녀의 옷의 액체가 얼마나 감미롭게 흐르는가를 나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 내가 시선을 던져 서로 자유로이 노니는 화려한 울동을 볼 때면  
 오, 나를 붙잡는 저 번쩍거림이여!

Whenas in silks my Julia goes,  
 Then, then, me thinks, how sweetly flows  
 That liquefaction of her clothes.

Next, when I cast mine eyes, and see  
 That brave vibration, each way free,  
 O, how that glittering taketh me!

Donne이나 Herrick이 활약하던 17C에 있어서는 시를 운문과 동의어로 취급하여, 으레히 시라고 하면 Herrick의 시와 같이, 화려한 속삭임이나, 미사려구의 장식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다.

Donne의 시는 구어체(대화하는 형식)로 되어 있으며, 산문적이며 벼룩을 등장시켜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지(機知, wit)로 차여 있다는 사실이 Herrick의 시와 구별이 된다.

Donne의 시 속에는 이와 같이 구어체 문장을 내담하게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시에서는 구어체를 시 속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금기에 가까웠다.) 음악적 요소 대신, 비시적이라 하여 시에서 경원시되었던 모든 요소들을 시에 동원한 것이다.<sup>7)</sup> 뿐만 아니라, Donne의 시 속에는 고전과 시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상투적인 언어, 이를테면, 소녀(girl)를 요정(nymph)으로, 고기(fishes)를 지느러미가 있는 무리(funny tribe)로, 또 새(birds)를 깃털 달린 합창단(feathered choir), 또는 가벼운 국민들(airy nations)로, 여자(women)를 아름다운 이성(fair sex)으로, 미풍(breeze)을 얽은 부인 옷이 술술 날리는 듯한 바람(zephyr)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러한 시적 표현을 역겹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Donne의 이러한 시의 태도에 대하여 그의 친구 Ben Jonson은 “어떤 일들을 저지른 세계에서 첫번째 시인(the first poet in the world for somethings)” 이라고 한 뒤 “단은 악센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할 만하다. (Donne, for not keeping of accent, deserved hanging)”이라고 혹평을 하였다.<sup>8)</sup>

그가 이런 혹평을 한 것은, 고전시가 갖는 간명하고 박력 있는 시풍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의 작시대도<sup>9)</sup>와 위배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7) 高遠; John Donne의 Imagery(영어 영문학회 편, 영어영문학 September 1961, pp. 84~85)

8) 吳碩奎; 古代詩에서 古典詩(新丘文化社 刊, 英詩概論 p. 176)

9) Ibid

그 녀석을 화나게 할런저 몰라  
 녀석의 제집 구멍 속에다  
 어떤 이상한 마력으로 혼을 불러 일으켜  
 그녀가 마술로 그것을 쓰러뜨릴 때까지 그것을 놓아둔다면…,

……’ would anger him  
 To raise a spirit in his mistress’s circle  
 Of some strange nature, letting it there stand  
 Till she had laid it and conjured it down <sup>10)</sup>

이것은 Shakespeare의 Romeo and Juliet 중에 나오는 시이다.

Warren은 이 시를 의설적인 농담이며, 구어체 시라고 말하고는 “그것은 아주 불순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불순한 것은 그의 농담이 기지(witty)에 가득차 있고, 가장 불순한 것은 그 형식에 있어 지적인 복합성에 있다.”<sup>11)</sup>고 하며, 사실상 이 시에 대하여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를 마실 시간에 집에 돌아온 타이피스트는 조반상을 치우고,  
 그녀의 난로에 불을 붙이고, 통조림 음식을 끄집어 내놓는다.  
 창밖엔 위험스레 널린  
 그녀의 마른 속옷가지는 황혼의 햇살이 닿아 있고,  
 낡은 의자 위엔(밤엔 그녀의 침대에)  
 양말짝이며, 슬리퍼며, 속옷, 크르셀 같은 것이 쌓여 있다.

The typist home at teatime, clears her breakfast, lights  
 Her stove, and lays out food in tins.  
 Out of the window perilously spread  
 Her drying combinations touched by the sun’s last rays,  
 On the divan are piled (at night her bed)  
 Stockings, slippers, camisoles, and stays.

이것은 T·S Eliot의 <황무지> (The wast land)의 제3부인 타이피스트의 정사 장면 일부를 예로 든 것이다.

10) Danziger Johnson; An Introduction of Literary Criticism p. 322에서 재인용

11) Ibid p. 322

T·S Eliot는 고전파 시인들이 시에 있어 금기로 삼고 있던 스타킹, 슬리퍼, 여자 속옷(camisoles), 코르셋(stays), 여자들 옷가지(combinations) 등의 지저분한 여자들에 속하는 물건들을 시에 동원시켰다.

이와 같이, Eliot는 현대인이 사용하는 일상어를 시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언어의 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그럼으로써, 시인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하겠다.<sup>12)</sup>

사실, 고전파 영국시인들은 일상어도 시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Wordsworth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시어가 일반 민중의 언어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였다.<sup>13)</sup>

Wordsworth의 이같은 주창이 T·S Eliot의 시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확실히, 20C에 들어와서는 영시에 있어서의 시어는 19C와는 달리, 화려한 감각적 장식을 떼어버리고 단순한 구어체와 일상용어로 나타나며, 시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가 구별없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小者 李生원네 무우밭은요, 질마재 마을에서도 밀둥저리가 굶다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전 이 小者 李生원네집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집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이 아주 센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했읍니다.

옛날에 新羅적에 智度路大王은 연장이 너무 커서 짝이 없다가 겨울 높은 나무 밑에 長鼓만한 똥을 눈 색시를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 여기 이 마누라님의 오줌 속에도 長鼓만큼 무우밭을 鼓舞시키는 무슨 그런 신바람도 있었는지 모르지. 마을의 아이들이 길을 빨리 가려고 이 덕 무우밭을 밟아 질러 가다가 이 덕 마누라님 한테 들켜는 때는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아이들도 한 수 없이 알게 되었읍니다. —「네 이놈 게 있거라 저놈을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다운 오줌을 대가리에다 몽방 잘기어 놀라!」그러면 아이들은 평 새끼들 같이 풍기어 달아나면서 그 오줌의 힘이 얼마나 커올까를 푹푹히 잘 알 밖에 없었읍니다.

서 정주의 <小者 李生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이란 시의 전문이다. 전라도 고창지방의 어느 한 부락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구담(口談)을

12) 李昌培; 二十世紀 英美詩의 形成 p. 77

13) 崔昌鎬; 英詩概論 p. 89.

시로 나타내었다. 문제는 이 시가 고창 어느 부락에만 국한된 때의 이야기 가 아니라, 한국 어디에서나 이와 비슷한 구담이 있음직하다는 것과, 멀리 신라시대에도 이와 흡사한 설화가 있었다는 데에 있다.

서 정주는 우리 시가의 전통성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시인이다.

여기, 이 시에서도 결국은 신라적의 시적 발상과 오늘날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로서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는 완전히 구어체이며, 산문형식이며, 일반서민들 사이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속된 표현(그들은 이런 말의 표현에 익숙해 있으며, 이런 말의 표현이 속되다고 하는 의식을 하지 못한채 이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이 들어 있다. 서 정주의 이같은 시도는 한국 현대시의 형태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성을 던져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도 그 시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시와 산문의 구분조차 모호할 정도로 시어가 구분 없이 두루 쓰이고 있다.

## II

이조시대의 시조(이 글에서 시조라고 하면 평시조를 이름)는 주로 유교 이념의 표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유교의 이념은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등에 기탁하여 오상고절(傲霜孤節)의 충(忠) 개념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직설적으로 <님 향한...> <성은이...>하는 틀에 박힌 충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조시조 속에는 효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다. 정 철의 훈민가, 주 세봉의 오륜가, 김 상용의 훈계자손가, 박 인로의 오륜가 등이 이것의 일부다. 충이니 효니 하는 오륜에 바탕을 둔 작품들은 작자가 관직에 있을 당시에 주로 짓고 있다. 그러나, 강호의 노래나 어부의 노래 등의 자연을 벗 삼은 노래들(물론 이들 작자들은 자연을 자연대로 보는 순수한 태도가 아니라, 의식의 도피처로서 자연을 찾고 부르는 불순한 태

도가 거의 전부이다.)은 비유법에서 물리나 앓은 당시의 황작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자발적인 태도로서의 자연에 대한 귀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순응의 태도로 자연을 찾는 것이다.

유교이념에서 벗어난 시조 작품들이 아주 귀하다는 것은 이조사회의 정치이념이었던 주자학과 관련성을 가진다 하겠다.

우언이라 할지 몰라도, 주자학의 수입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시조가 탄생하였으며, 주자학이 시들과 실학사상이 융성해지는 18C 상반부터는 시조문학도 그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이 시기는 주자학의 실천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는 ‘사설시조의 전성기’<sup>14)</sup>인 것이다.

이조의 시조문학은 주로 주자학의 이론을 담는 그릇의 역할이었으며, 양반 사대부들의 교양물이었던 것이며, 그들 위주의 공동예술(Communa art)이었다.

우리가 이조시조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고정된 의식의 흐름과, 상투어(Cliché)로 점철된 <좁은 공간>(획일성 내지 표준화된 태도)이다. 이조사회는 양반사대부들이 통치했던 정체된 사회였으며, 그들의 통치이념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있었다. 그러자니, 유교이념을 담을 그릇으로서 시조를 찾게 되었으며, 또 그들 위주의 집단안락 내지 집단 예술로서 시조를 찾게 된 것이라 본다. 이것이 결국 이조 시조문학을 좁은 공간 속으로 몰아 넣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사설시조가 등장한 것은 여러 모로 유익한 일이다.<sup>15)</sup>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틀(정형성)을 깨뜨린 파형의 시조형태이다. 형식의 틀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수(字敎)의 통제된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시상의 자유로운 전개와 표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14) 이 문제는 최 동원님의 「古時調 研究」에 상세히 논증되어 있음

15) 사설시조가 평시조에서 갈라져 나왔건 안그렇건, 또는 사설시조를 시조문학이라는 범주에 넣지 않고 별도의 Genre로 다루어야 하건 안하건 한국시가문학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설시조의 출현은 시가문학을 풍부하게 하였다.

무지하다싶이, 사실시조는 평시조와 그 내용에 있어 구별이 된다. 평시조의 주제로서는 강호한정류(江湖閑情類)가 제일 많지만<sup>16)</sup>, 사실시조에 와서는 남녀문제를 다룬 작품이 제일 많다.<sup>17)</sup>

일찌기, 고 정옥(高晶玉)님은 사실시조의 내용상의 특징을 다음 6가지로 요약하였다.<sup>18)</sup>

- (1) 具体性 乃至 形而下的인 性質을 가진 이야기와 譬喩의 大膽한 導入
- (2) 強烈한 愛情의 表出
- (3) 肉慾의 忌憚없는 咏發
- (4) 語戲・才談・稗說의 導入
- (5) 赤裸裸한 自己 暴露
- (6) 非詩的 事物의 無思慮한 詩化 企圖

무엇보다도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4)와 (6)에 관한 일이다.

확실히 평시조만을 읽다가 사실시조를 읽으면 유교적 이념의 세계에서 떠난, 육설이타던가 채담 등의 비시적인 표현들이 사실시조에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일이다.

평시조에서는 특하면 어즈버, 두어라, 아회야, 님 향한 등의 두어가 고경화되다 싶이 되어 있다. <어즈버>라는 말은 이조시대의 일반대중들 사이에 널리 쓰이던 구어(口語)는 아니고, 시조문학에 두고 쓰던 말이 아니었던가 한다. 또 <두어라> <아회야>하는 말도 시조문학에서만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 말들도 시조의 작품 속에서는 끝자로서의 두어라, 소년을 직접 부르는 형식으로서의 아회야와는 좀 다른 뜻으로 쓰인 것 같다.

또한, 시조 종장의 끝을 거의 다 <하노라>투로 맺고 있는데, 이 <하노라>하는 말도 문어(文語)로서, 일반대중들의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다.

1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육당의 「時調類聚」와, 서원섭님의 「時調文學研究」(p. 190)에 나타나 있다. 서원섭님의 주제에 관한 통계는 앞서 육당이 했던 통계를 다시 확인한 결과가 되었다.

17) 사실시조의 주제 파악에 대한 연구로서는 이능우님의 「古詩歌論攷」(p. 293)와 역시 서원섭님의 「時調文學研究」(p. 297)에 나타나 있다. 두분 다 남녀문제를 다룬 작품이 제일 많다고 하였다.

18) 고 정옥; 古長時調選註(正音社, 1949) p. 10

말하자면, 이런 투어는 양반 사대부층에서 쓸 수 있는 양반 행세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투어도 사설시조에 오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타성적인 말을 사설시조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어름아 귀 뉘옵신고 전년 佛堂에 勳鈴僧이 내 울너니  
 홀居士 내 홀노 저시논 방안에 무스것 할라 와져오신고  
 홀居士 노감투 비셔 거논 말 것터 내 곡갈 버셔 걸너 왔노라  
 (瓶歌 848)

이 작품은 대화 형식, 즉 구어체로 되어 있다.

홀居士와 勳鈴僧과의 대화 속에서 느끼는 것은, 홀거사는 거사답게 밤중에 찾아온 동령승을 던즈시 누구냐고 기침까지 하면서 묻는다. 동령승은 자기 신원을 분명히 밝히고는 홀거사와 밤을 같이 지내고 싶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홀거사 노감투 벗어놓은 말뚝 곁에 자기의 고깔을 벗어 걸려고 왔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승려들을 놀려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설시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뒷보다 전문이 대화형식, 즉 구어체로 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랄 수 있겠다.

關氏니 외밤이 오려논이 두면 놀고  
 물 만코 더지고 거지다 홀터  
 並作을 부더 주며 할거던 연장 도흔 날이나 주소  
 眞實노 날을 니여 즐작시면 가리 들고 씨 지어 불가 할노라  
 (瓶歌 1058)

이 작품은 남녀의 성기를 은유한 육정적인 것이며, 그 표현이 또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표현은 양반 사대부 위주로 창작된 평시조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하겠다.

두터비 무리를 풀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山 바라보니 白松骨이  
 석잇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떡 휘어 내도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넌 벨식만정 에힐질 번 할패다  
 (珍本靑丘水言 520)

수탈의 대상자로서의 일반 서민층(푸러)과 일반 서민층을 괴롭히는 중간 계층의 벼슬아치(두터비), 그리고 이 벼슬아치를 감독하는 상층에 속하는 직권계층(白松骨), 이 세 계층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풍자성을 띤 작품이다.

一身이 사자 혼이 풀섯 계워 못견될쇠  
 皮人겨 又튼 갈랑니, 보리알 又튼 슈통니, 즐인니, 又선니, 존벼록, 굴근  
 벼록, 강벼록, 倭벼록, 기는 놈, 휘는 놈에 琵琶 又튼 빈대삭기, 使令 又  
 튼 등에 아비, 갈따귀, 삼의약이, 센박회, 늘은박회, 바금이, 거절이, 불  
 이, 썩죽훈 목의, 다리 기다훈 목의, 야원 목의, 술진 목의, 굴입애, 썩목  
 이, 晝夜로 빈 썩 업시 풀건이 썩건이 썩건이 뜻건이 甚훈 唐빌려 에서 일  
 여왜라

그 中에 참아 못견될손 六月 伏더위에 쉬푸틴가 할노라

(枚注 海東歌謠 394)

이 작품 또한 앞에서 본 작품과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일반서민의 목소리로 되어 있다.

이 두 작품(앞에서 본 작품과 이 작품)은 착취당하는 일반서민층의 신음소리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음의 고통을 직설로 나타내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나타내었으며, 서민을 수탈하는 벼슬아치들을 동물로 비유하고 있는 빈정거림의 투로 쓰인 작품이다.

이 같은 작품들이 사설시조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평시조의 작가층이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었는데 반하여, 사설시조의 작가층은 양반 사대부들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작품들은 주자학을 신봉하던 도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어체나 속된 언어 또는 온당하지 않은 비유 등으로 인하여 시가로서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작품들이다.

사설시조에는 주지하다싶이 이런 시로서 속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시조문학 전체(평시조와 사설시조 전부)를 두고 볼 때, 또는 이조의 시가문학 전체를 두고 볼 때, 사설시조에 등장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새겨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 IV

문학의 용어는 전통과 독창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용납된 형태를 따르므로 해서 선인들의 업적을 내것으로 활용하는 일과, 또 한편으로는 문맥 속에서 (또는 그 문맥 자체가) 전에 한번도 그렇게 나타낸 일이 없는 별다른 말투나 단어나 관념의 세계를 독자에게 보임으로 해서 독자에게 놀라움을 주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는 진부하고 상투적이라는 평을 듣기 쉽고, 후자의 경우는 참신하다는 말 대신에 생경하고 거칠다는 평을 듣기 쉽다. 그러므로, 문학의 용어는 이것들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평시조에 쓰인 시어는 참신하다기보다는 타성에 젖은 상투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

상투적 언어라는 것은 한때는 참신했지만, 그것이 작품 속에 널리 쓰임으로 해서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되어 미적 충동을 독자에게 안겨주지 못하는 권태로운 언어를 말한다.

예로 몇가지만 들면, 강산풍월(江山風月), 양양백구(兩兩白鷗), 위국충절(爲國忠節), 예의염치(禮儀廉恥) 등등의 말이나, 걸핏하면 백구가 어떻고, 명월이 어떻고, 또는 풍상이 어떻고, 오륜이 어떻고 하는 말들은 평시조에 두고 쓰는 상투적 언어이다.

그러나, 사실시조에 오면 평시조의 이런 두고 쓰는 문자가 많이 가져지고, 대신 평시조에 보이지 않던 뿌리뿔장수·닛박장수·망망치장수·홍도장수·드래꼭지장수·조리장수 등의 장사꾼이 등장하기도 하고, 갓나희·개솔년·알간나희·샤당년·환양노는년·송년·암居士·썩당년 등의 여자의 비어가 보이는가 하면, 갈랑니·슈통니·즈벼룩·갈싸귀·두터비·프리白松骨 등등의 동물명이 보이기도 한다.

이같이 평시조엔 보이지 않는 말들(이것은 사실시조의 소재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실시조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육정적인 표

현이나 목설이 거의 없는 평시조와는 달리 사실시조에는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보아온 바와 같다.<sup>19)</sup>

Warren은 「순수시와 비순수시」(Pure and impure poetry)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어 시 속에 비시적인 개입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시는 불완전한 우리 세계가 가지는 순수함보다도 더 순수하지가 못한 것이다. 시는 불협화음, 불완전한 리듬, 추잡한 단어, 추한 생각, 그리고, 구어체의 용어, 삼투어, 단조로운 기술적인 용어, 두뇌작용과 주장, 자기 모순, 재주부림, 아이러니, 사실주의 등등으로 시 스스로를 더럽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들을 산문과 불안한 세계로 불러들이고 있다 할 것이다. 때때로 시인들은 이런 비시적 상태를 염두에 두고 슬퍼한다. —종락— 그러한 불순한 요소들이 시 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보면 시적인 결과는 더욱 더 약해지고 말 것이다.<sup>20)</sup>

이상과 같이 말하면서, 좋은 시일수록 의식적으로 많은 잡동사니를 시 속에 내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Warren이 밝힌 바와 같이 시에 불순한 요소(비도덕적이며 전통적인 관념에서 볼 때 비시어)를 포함시켜야 좋은 시가 된다는 것은 전통시에 대한 반발을 의미한다. 즉, Warren의 말은 교훈적인 작품이라던가, 도덕적인 작품이라던가, 아름다운 말만을 골라서 써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고전시에 대하여, 시의 소재나 주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으며, 시어도 일상언어와 구별하여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반발은 이미 Shakespeare, John Donne, T·S Eliot 등의 시에서 보아온 바와 같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Shakespeare, Donne, Eliot의 시는 비순수요 추한 시이라 할 수 있다:

19) 물론 사실시조 그 자체의 범위 안에서 본다면, 이런 요소들은 그 나름대로의 타성적인 삼투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지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시조와의 대비관계에서 사실시조를 보자함이다.

20) Danziger Johnson; An Introduction to Literary Criticism p. 321

평시조의 관점에서 보면 장사치 이야기, 육담, 육설, 빈정거림 등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시조는 비순수(비도덕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작 대도)요 추한 시조(타락된 시조)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와 추는 관점의 차이라 하겠다.

Karl Rosenkranz는 그의 「醜의美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사귀는 꽃에 비하여 불완전하고, 꽃은 열매에 비하면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식물학적으로 또는 경제학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미학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완전한 경우가 있다.<sup>21)</sup>

이와 같이 미와 추는 관점의 차이라 하겠으며, 미의 반대개념인 추는 대상 그 자체는 불쾌를 줄 수 있지만 성격적인 미가 그 가운데에 대재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여기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카고 미술관의 Von Stuck가 그린 Salome를 예로 들어보자.

Salome가 세례요한의 잘라진 목을 끌어 앓고, 춤을 추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그러나, 작가는 관람객의 이런 혐오감을 오히려 노리고 있는 듯하다. Salome가 세례요한을 그토록 흠모했지만, 세례요한은 그 흠모에 동조하지 않자, Salome는 요한을 죽여, 죽은 요한의 목을 안고 광적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의 표면에 나타난 광적인 잔인성은 그 그림의 내부에 잠겨 있는 비련의 이야기와 결부되어 오히려 아름다운 미적 쾌감을 관람객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그림은, 예술이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태두리에서 벗어나 예술의 생명을 자유로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술은 하나의 통어력(統御力)있는 우월과 권위에 찬 상상을 우리에게 주는<sup>23)</sup>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시조를 양반 사대부들이 읽는 경우와 일반 서민들이

21) 趙要翰: 藝術哲學(經文社, 1976) p. 33에서 재인용

22) 李在銑·申東旭: 文學의 理論(學文社, 1977) p. 33

23) 美學(美術研究會編, 文明社, 1975) p. 150

읽는 경우의 이 양자 사이엔 미적 쾌감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양반 사대부들의 현학적이고, 교훈적이고, 또 서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그린 시조를 읽을 때보다는 그들의 언어(일반 서민층에서 흔하게 쓰는 말이나 또는 그러한 발상을 가진 언어로 쓰인 사실시조를 읽을 때가 훨씬 더 미적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오늘날의 평범한 독자들이 평시조와 사실시조를 읽는다면, 작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시조의 한정된 공간(권위에 찬 세계)<sup>25)</sup>이 무너진 사실시조에서 또 다른 미적인 쾌감에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시조에 가득찬 비시적 언어(평시조의 입장에서 볼 때)의 등장은 시조 문학 전체를 두고 볼 때, 또는 시가문학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우리 시가문학을 풍부하게 한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

## V 마 무 리

영시는 17C John Donne 등의 형이상학과 시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답적이고 상투적인 시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Donne 등의 형이상학과 시인들에 와서는 욕설, 구어체, 욕담 등의 여태 비시적 요소라 하여 시어로서 경원시되었던 요소들이 시어로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시인들이 가지는, 시어는 한정된 말이 아니라 어떠한 말든 시어

24) 사실시조라고 해서 모두 서민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그 주제나 표현 되는 언어가 양반 사대부 계층의 발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작품이 대다수인 것은 거의 틀림 없는 것 같다.

25) 왜 평시조는 권위에 찬 한정된 공간을 고수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평시조의 작가들이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었다는 데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시조를 유교 이념을 담은 그릇으로 또는 그들만의 독점물(Communal art)로 이해하고 있었다면가, 아니면 양반 사대부의 체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식의 화석화(fossilization of consciousness)'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사실시조는 양반·사대부들 위주의 창작물에서 떠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며, 최 동원님이 「古時調研究」(p. 177)에서 밝힌 長時調(사실시조)의 작가적 주류는 중인계층이며, 그 가운데서도 서리출신의 가객들이 주역이었다는 확설이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의 자질을 가진다는 관점에 앞선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시조에 있어서는 고답적이며, 상투적이며, 교훈적인 시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설시조에서는 욱설, 구어체, 육담, 빈정거림 등의 비시적 요소(평시조의 관점에서 볼 때)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평시조의 한정된 시어의 공간을 깨뜨렸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사설시조의 이러한 비시적 요소의 등장은 시어로서의 타락이요, 시조를 더럽히는 요소로 지목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시조문학(또는 시가문학)에 있어, 시어의 영역을 확산시킨 결과로 지적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문학 작품 속에 운문의 언어와 산문의 언어가 구별 없이 두루 쓰이고 있으며, 시인들은 욱설, 구어체, 육담, 빈정거림 등의 요소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시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설시조의 출현은 평시조보다는 시어의 입장에서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이요, 또 오늘의 시(현대시조, 현대시)에 앞서서 시어를 확산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